

海外農業資料 17

現代農業의 危機

崔 洋 夫

編譯

金 洙 郁

머리 북친

現代農業의 危機 1

웬델 베리

都市와 農村의 合流地點 12



韓國農村經濟研究院

RP 2245

解 題

現代社會의 급속한 産業化過程에서 農業과 農村은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으며, 또 그러한 변화는 現代産業社會의 將來에 대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都市化·工業化로 집약되는 現代社會의 産業化는 社會發展의 상경으로 여겨져 왔으며, 특히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大規模 人口移動과 農村人力의 産業勞動力化는 社會發展의 한 指標가 되어 왔다. 人口의 大移動過程에서 農村文化와 環境의 破壞라는 社會的 費用을 지불하면서 農業은 産業化, 食品生産은 工業化라는 革命的인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들의 社會을 더욱 풍요롭고 안정되게 하며, 특히 우리들의 食糧을 더욱 값싸게, 풍부하게 공급해줄 것이다라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었고, 또 그러한 믿음이 사실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現代産業社會가 부딪친 都市問題는 根本的으로 그것이 農村問題이며, 農業과 食品生産의 産業化는 食品의 質的 低下를 가져왔으며, 에너지集約型的 技術에 의존하고 있는 産業化된 現代農業은 고갈해 가고 있는 化石燃料과 함께 그 취약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問題들에 대한 새로운 認識이 시작되고 있다. 아마도 우리들의 産業社會가 그동안 즐겨온 “값싸고 풍부한 食糧의 時代(the era of cheap abundant food)”가 끝나가고 있으며, 그러한 우리들의 즐거움에 대한 값비싼 代價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될 새로운 時代가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現代農業의 本質과 危機에 대한 깊은 理解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恒存하는 에너지危機와 資源不足 속에서 전개될 後期産業社會 속에서 農業과 農村이 어떠한 役割을 담당해야 하고 또 그 役割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農業과 農村은 물론 現代의 都市·工業社會가 어떻게 새롭게 탈바꿈해야 하는가를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歐美社會가 겪고 있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 社會는 보다 넓고 큰

眼目으로 우리의 農業과 農村의 將來를 새롭게 인식하고 構想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책자에 담긴 2편의 論文이 이러한 우리들의 새로운 認識과 構想에 一助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이 책자에 실려 있는 두 편의 論文은 리차드 메릴(Richard Merrill)이 編著한 「Radical Agriculture」 가운데서 제1부의 1장 “Radical Agriculture”와 2장 “Where Cities and Farms Come Together”를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1981. 10.

現代農業의 危機

머리 북친*

農業은 文化的의 한 樣式이다. 農耕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社會的, 文化的의 현상이다. 동물들 사이에 있어서도 農耕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은 아주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人間에 있어서 조차도, 농업이 발달된 것은 약 1만 년 전부터이다. 그렇지만 農耕이 단순한 産業技術로 전락한 오늘의 시점에서 “現代” 農業이 갖는 文化的의 含蓄意味, 바꾸어 말하면 國民保健 뿐만 아니라 自然 대 人間의 관계, 人間 대 人間의 관계에 미친 영향을 음미해 보는 것은 꾀의 미있는 일이다.

과거와 현대의 營農方式은 놀랄 만한 차이가 있다. 現代的인 안목으로 과거의 營農方式을 이해하는 것과 이 兩者가 어떤 형태의 文化的인 繼續性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란 매우 힘들다. 이 차이를 단순히 技術의 차이로만 돌릴 수는 없다. 資本主義的인 農耕은 이제 市場經濟體制 속에서 利潤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事業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土地는 “不動產”이라 불리는 讓渡可能한 商品이며, 土壤은 “自然資源”이고, 食糧은 “貨幣”라는 仲媒者를 통해서 非人格的으로 사고 팔리는 交換價值에 불과하다. 農業도 사실상 鐵鋼産業이나 自動車産業 등과 같은 産業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차이가 있다면 農耕은 기후나 계절변화 등의 非産業的 要素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만큼 “合理的”이고 科學的으로 영위되는 경영에서 나타나는 正確度를 결여하고 있다는 정도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自然的 要因들은 오

* 고다드大學의 社會生態研究프로그램과 라마포大學의 新研究센터에서 강의를 맡고 있음.

히려 先物市場(future market)에서, 그리고 生産者와 小売商 사이에 개재한 中間商의 資本家的 投機의 對象이 되어 왔다.

食品生産의 이같은 非人格的 領域에 있어서는 흔히 “農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農作物에 農藥을 뿌리는 비행기 조종사이거나, 土壤을 生命없는 無機複合物的 保管所로 취급하는 化學者, 또는 作物生育보다는 엔진에 익숙한 農業機械의 運轉士일 수가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그의 土地에 대한 지식이 도시의 택시 운전사를 무색케 할 정도인 金融業者들일 수가 있다는 점은 결코 놀랄 만한 것이 못된다. 食品은 容器에 담겨져서, 고도로 가공되어 처음 모습과는 전혀 닮은 데가 없는 모습으로 消費者에게 전달된다. 현대적인 화려한 슈퍼마켓에는 본래의 살아 있는 모습을 대신한 植物, 肉類, 酪農食品의 그림이 그려진 포장상품들이 쌓여 있으며, 消費者는 이런 상품을 구입한다. 채소, 과일, 곡물, 酪農品, 肉類 등은 有機生物體로서의 本質的인 特性을 상실한 채 이것들은 이것을 생산한 企業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빅 맥(Big Mac)”이나 “스위프트 소세지(Swift Sausage)”라는 상표만 보아서는 消費者들이 그 食品을 공급하기 위하여 살아 있는 生命體가 고통스럽게 도살당했다는 희미한 생각마저 느낄 수 없다.

土地를 양도할 수 없는 거의 神聖한 영역으로 생각하고, 農耕을 精神的인 활동으로, 食糧消費는 신성한 社會的인 饗宴으로 간주하였던 옛날의 自然崇拜的인 感覺과 오늘날의 非自然化된 農業觀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大地는 살아 있고, 大地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은 農耕文化의 拡散에 障礙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農耕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에도 수렵인들의 自然崇拜的인 感覺은 지속되었다. 農耕文化의 많은 신화적인 이야기들은 그 당시가 生命과 意志와 聖靈이 충만한 매혹적인 세계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포이에르 바하의 인간의 投射體로서의 神이라는 개념은, 古代의 人間이 自然世界에 얼마나 젖어 있었나를 잊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古代의 人間들은 自然의 확장이고 投射體였다는 사실을 看過하고 있다. 古代 人間들이 自然과 “同僚意識” 속에서 살았다는 말은 “인간은 自然의 위도 옆도 아니고 바로 이 自然의 일부로서 살았다”는 것을 뜻한다.

土壤은 살아 있었고 정말로 生命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農耕은 노여움을

가라앉히는 축제를 필요로 하는 神聖한 행위였다. 실제로 營農準備에서 收穫까지의 모든 營農過程은 각기 나름대로의 신성한 중요성을 갖고 있었다. 수확은 그자체가 신성했으며 “빵을 굽는 일”은 매일 一家親戚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집안의 향연임은 물론 낫선 자와 共同社會와의 정중한 和解의 행위였다. 우리들은 계약을 할 때 술좌석을 마련하거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잔치를 벌여 축하한다. 나무를 벌채하거나 또는 動物을 도살할 때는 神의 노여움을 진정시키는 향연이 베풀어졌으며 이러한 행위는 동식물에도 生命이 있다는 점과 또한 動植物들도 신성한 自然의 일부라는 점을 인식시켰다.

神話와 古代人들의 여러 가지 行為가 現代人에게는 유치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이것들이 現代農業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많다. 이러한 前科學的인 感覺을 잃어버리고 난 후 肥沃度의 상실과 生態均衡의 파괴라는 많은 費用을 지불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大地는 살아있는 것이며, 大地도 건강과 動態的인 均衡을 갖고 있고, 살아있는 社會의 複雜性에 비유되는 複雜性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같은 지식들의 상당한 부분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들이 전혀 신성한 方法으로 그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다. 1960년대 전반 무렵까지만 해도 美國農學에서는 토양 속에 살아있는 有機體는 作物成長의 化學的 作用과는 대체로 무관한 媒介體라고만 보았다. 그러나 질산염, 殺虫劑, 除草劑, 極毒化學製品 등이 대량으로 토양에 스며든 후에야 우리는 우리들 자신들이 “土壤公害”라고 불리울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公害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 이들 毒性物質들은 저녁 식탁에 보이지 않는 첨가물로 등장하고 있으며 自然의 착취적인 이용의 副產物이 보이지 않는 幽靈이 되어 다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 地球上의 광대한 토양을 크게 파괴시켰음에도 그것은 단순한 現代科學的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비옥한 토양의 형성에 필수적인 動物과 植物들의 서식이 차츰 감소하고 있으며, 넓은 면적의 土地들이 척박해지고 사막화되어가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過去의 農業은, 비록 환상적인 면이 있었지만, 人間의 自然에 대한 관계를 전전한 生態學的 變數 안에서 규정했다. 에드워드 하이암즈(Edward Hyams)가 지적한 대로 人間의 태도와 文化도 인간이 사용하는 道具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단일 “도끼가 古代人이 나무를 자를 때 쓰는 物質的 道具이고, 그 도끼를 效率的으로 휘두르게 하는 것이 知的 道具”라고 한다면, “精神的 道具란 무엇을 말하는가?” 精神的 道具란 인간이 주어진 環境에서 일으킨 變化의 결과에 따라 갖게 되는 感情에 準拠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그들의 행동을 제어하고 감시하도록 하는 道具라고 말할 수 있다.

古代人들은 나무가 固有한 영혼을 갖고 있고 崇高하다고 믿었으며 또한 나무마다 서로 다른 神이 있다고 믿었으므로 나무를 자른다는 것은 心的인 制約을 받았을 것이다. 즉, 오시리스(Osiris)神은 아카시아에, 아폴로神은 떡갈나무와 사과나무에 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은 神話的인 側面을 많이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土壤保存에 매우 價值가 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人間에게도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이는 즉, 어느 나무도 마음대로 벨 수는 없고 꼭 필요한 때만 벌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의미는 없더라도 나무를 벨 자에게 위험스럽고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을 想起하게 하는 慰安의 響宴이 수반되었다.

만약 文化를 “道具”로 표현할 수 있다면, 약간의 觀點을 바꾸어 도구를 文化의 일부로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다른 觀點은 하이암즈가 말하려고 했던 것에 가까와 진다. 사실, 부르조아적 心理의 特性을 더욱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은 藝術, 價值, 合理性 등을 단순한 道具로 전락시키는 精神姿勢라고 말할 수 있다.

農業에 대한 본질적인 接近(radical approach)은 農耕을 단순히 “自然資源(natural resources)”에 대립하는 “人間技術(human technique)”로 보는, 흔히 알려져 있는 機械主義的 接近을 초월하려는 것이다. 이 本質的 接近은 문자 그대로 土地를 家庭(oikos)으로 본다는 엄격한 意味에서 生態學的인 것이다. 土地는 “資源(resource)”도 아니고 “道具(tool)”도 아니다. 그것은 무수한 박테리아, 곰팡이類, 곤충, 땅속의 벌레, 그리고 작은 포유류 등의 家庭이다. 이러한 家庭=土地는 수렵에 있어서는 本質的으로 흐트러지지 않는 반면, 農耕에 있어서는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人間은 土地의 일부가 되기도 하였다. 人間이 土地에 대하여 주고 있는 영향은 이미 間接的인 것만은 아니다. 人間은 먹이연쇄(food webs)와 生物地理化學的 週期(biogeochemical cycles)에 直接的으로 개입해 오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歷史의 發展過程에서 지배적인 農耕方式, 즉 人間이 이용한 土壤狀態를 궁극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人間社會의 制度를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다. 모든 人間社會는 “土壤共同體(soil community)” 라고 말한 하이얌즈(Hyams)의 표현은 타당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土壤類型과 農業技術의 變化는 土地가 集閉的으로 경작되어야 할 것인가, 또는 個別的으로 경작되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말하면 協力的 方法인지, 擄取의 方法인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때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결국에는 社會體制에 까지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高度로 中央集權化된 古代의 世界帝國은 中東의 삭막한 地域에서 꼭 필요한 灌溉事業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中世의 協同的 村落은 開放耕地圖體(open field strip system)와 보습, 쟁기에 의해 발전되었다. 린 화이트 2세(Lynn White, Jr.)는 西歐가 自然에 대해 強壓的인 態度를 취하게 된 起源을 카롤링거 王朝에서 찾고 있는데, 그때에는 무거운 유럽형 쟁기가 支配的으로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農民에 대한 土地割當은 家族生計의 必要에 의해서가 아니라 “쟁기를 사용하는 耕作팀에 대한 寄與度에 비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는 自然이나 神보다는 勞動을 강조함으로써 勞動의 重要性에 따라 12개월의 이름을 바꾸려는 샤를마뉴(Charlemagne)의 努力속에서 이러한 態度變化를 발견하고 있다. “古代 로마의 달력에는 때때로 人間活動을 그린 風俗圖가 들어 있다. 그러나 그 支配的 傳統(이 전통은 비잔티움 時代까지 계속된다)은 달(months)을 수동적으로 擬人化한 人間の 屬性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었다. 中世에 새로 정립된 카롤링거 달력은 이와는 매우 달랐다. 새 달력들에 담겨 있는 것은 自然資源에 대하여 強壓的인 態度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 달력들은 그 起源을 분명히 北方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로마의 史詩에 매우 자주 나오는 올리브가 이때에는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달력의 그림들은 밭갈이, 秋收, 나무베기, 돼지에게 줄 도토리를 따는 장면, 돼지 屠殺 등으로 바뀐다. 人間과 自然은 이제 두 개의 事物이며, 人間은 支配者이다.”

近代資本主義 時代에 들어서자, 人間과 自然은 거의 완전한 敵對者로서 분리되었고, 自然世界에 대한 사람의 “支配”는 단순히 官僚制的 階級化가 아니라 냉엄한 支配의 形態를 취한다. 한때 氏族, 길드組合員, 그리고 都市國家의 同胞愛를 相互協助의 紐帶 속에 결합시켰던 가장 강력했던 共同

紐帶의 균열과 모든 사람을 敵對의인 購買者, 또는 販賣者로의 分離, 그리고 經濟的 및 社會的 生活範圍에서의 競爭과 自己中心主義라는 法則의 支配 등 모든 것들이 共同體意識을 강그리 분해시켰다. 共同體는 진정한 生活의 場所라는 傳統的인 假定은 인간의 의식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인간의 生活條件에 어떤 關聯性도 갖지 않게 되었다. 競爭的인 장글에서 자신을 위해 싸우는 외롭고 고립된 인간이야말로 바로 社會 또는 精神의 概念을 형성하는 새로운 出發點이 되었다. 폭발적인 社會的 敵對主義, 生態的 單純化, 만연된 公害에 의해 짐지워진 세계에서는 이러한 自然觀과 社會觀에서 비롯된 위험한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本質的인 農業은 人間의 共同體 意識이 回復하기를 追求한다. 첫째는 土壤이 生態系(ecosystem), 生物共同體(biotic community)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둘째로는 農耕을 自然的인 人間共同體와 農村社會文化의 活動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農耕은 역시 土壤과 人間社會의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中介者이며, 그것들이 만나서 잘 융합하게 하는 手段이다. 이러한 토양과 人間社會의 만남과는 몇 개의 중요한 意識이 前提되어 있다. 이것들 가운데 가장 분명한 것은 人間이란 “支配者” 또는 “主人”으로서 自然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自然世界의 一部分이라는 것이다. 人間 意識이 그 範圍에 있어서나 洞察力에 있어서나 특이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나 人間意識의 特異性이 自然의 支配와 榨取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관점에서 本質的인 農業은 우리가 位階社會의 영향 하에서 해왔던 것처럼 品種(variety)들을 位階秩序에 따라 構造化시키려고 해서 안된다는 生態學的인 立場을 받아들인다. 많은 事物들과 生物界에 이익을 주는 그들의 關係는 그들 나름대로의 特異性, 전체에 대한 寄与度 등을 고려하여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評價되어야 한다.

社會와 農業에서 多樣性은 억제당하기 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가치를 가진 것으로 장려되어야 한다. 生態系를 單純化시키면 시킬수록, 農業의 경우에는 길들여진 品種만 장려되면 될수록 生態系는 더욱 더 쉽사리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다. 먹이고리(food chain)가 복잡하면 할수록 生物界의 構造는 安定的이다. 生物界와 우리들 자신에 대해 매우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서 얻어 낸 이같은 洞察은 이미 오래된 進化論의 통찰이기도 하다. 生物界의 進化는 특히 分化和 集團化,

그리고 증대하는 生命體들 사이의 相互保存性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복잡하고 더욱 知的인 有機體에 적합한 대기와 환경을 再創造 하는 긴 과정이다. 單一耕作, 雜種強勢, 農藥 등에 대한 강조와 함께 가장 두려운 점은 食糧栽培에 도입된 單純化라고 할 수 있다. 이 單純化는 이미 地球上에 널리 퍼져 있으며, 오직 더욱 더 單純化된 形態의 生命體만을 生存케 하는 방향으로 地球의 進化過程을 退行시키게 될 것이다.

本質的인 農業의 多樣性에 대한 관심은 均형을 이룬 農業環境의 複雜性을 인정한다는 점에 있다. 均衡을 이룬 農業環境의 複雜性이란 植物의 영양과 健全한 生育에 영향을 주는 많은 要因들, 地域間에 존재하는 다양한 土壤의 聯關關係, 한 地域의 土地와 다른 지역의 土地 사이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氣候의, 地理的 및 生物學的 要素의 복합된 相互作用, 人間文化가 이러한 차이에 반응하는 다양한 방법 등을 말한다. 따라서 本質的인 農業은 농업을 과학으로서 뿐만 아니라 藝術로서 간주한다. 農民은 土地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야 하며, 특히 土地가 필요로 하는 慾求를 알아 차릴 수 있는 感覺을 개발해야 한다. 農民은 그가 社會體制 뿐만 아니라 특수한 生物體系에 속해 있다는 매우 뜻깊은 의미에서 “土壤共同體”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技術이란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면 오늘의 農業研究方法에는 별로 도움을 못 줄 것이다. 농업에 대하여 有機的 接近을 하는 專門인 鑑定家가 된다는 것은 化學的인 接近을 하는 開業醫師가 된다는 것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마치 가까운 郊外의 슈퍼마켓에서 사온 有機食品(organic foods)을 소비한다고 건강해 질 수 없는 것처럼 단지 有機農法(the organic approach)에 관한 雜誌나 案内書を 보는 것만으로는 有機農法을 사용하는 農民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綜合農法(the synthetic approach)에서 有機農法을 根本的으로 구별짓는 것은 自然世界에 대해 農民이 갖는 전반적인 態度와 習慣이다. 有機食品과 環境主義(enviro-nmentalism)가 널리 유행하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요즘 널리 퍼져 있는 皮상적인 “環境主義”와 本質的인 農業이 보는 生態主義的 觀點과를 구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環境主義는 自然世界를 社會的인 慾求가 얼마나 非合理的인가, 또는 綜合的인가를 불문하고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公害가 최소화되어야 하는 단순한 生物의 棲息地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서 진정한 生態主義的 觀點은 生物界를 인간이 그 일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스러운 綜合體로 본다. 따라서 이 세계에서 인간이 살아 남으려고 한다면, 인간의 욕구는 生物界의 욕구와 통합되어져야만 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綜合은 自然의 多樣性에 대한 존경, 자연의 運行過程과 關係의 複雜性에 대한 존경, 生物界의 共生的 態度의 함양에 대한 존경 등을 포함한다. 本質的인 農業은 간단히 말해서 農耕에 대한 새로운 技術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土地와 社會 전체에 대한 새로운 創造的인 認識(a new non-promethean sensibility)을 의미한다.

과연 우리는 우리 주위의 보다 큰 社會世界와 무관하게 하나의 개인으로서 이 새로운 認識을 완전히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을까?

本質的인 농업은 이같은 고립된 接近을 배격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설령 社會再建을 위한 운동을 主導하는데 있어서 個別的 行爲가 매우 귀중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生態主義的 社會(ecological society)를 배제하고서 우리는 自然世界와 生態學的으로 바람직한 관계를 이룰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現代資本主義는 본질적으로 反生態的이다. 資本主義를 구성하는 核心的인 關係(즉 購買者와 販賣者 關係처럼)는 개인과 개인이 싸우게 하고, 크게는人間이 自然에 대해 싸우게 한다. 무한대의 팽창이 가능하며 “生産을 위한 生産”, “消費를 위한 消費”라는 資本主義의 生活法則은 自然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社會生活과 人間의 自我實現을 위한 “至高의 德”으로 바꾸어 놓았다. 마르크스조차도 自然을 인간의 對象物, 즉 利用의 對象으로 처음으로 전환시킴으로써 資本主義를 “文明發達의 위대한 影響”으로 인정하게 될 때 이러한 부르주아 精神에 압도당한다. 자연은 더 이상 自體的인 權利를 가진 힘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개개의 自然法則의 理論的인 知識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통에 반해서 本質的인 農業은 경쟁보다는 피터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과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의著書에 나타난 바와 같이 共同體와 相互主義(mutualism)에 대해 강조하는 점에서 本質的으로 進歩主義的인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生態學”이라는 用語가 유행되기 이전, 정확히는 어네스트 헤켈(Ernest Haeckel)이 1세기 전에 이 말을

만들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生態學的이라고 적절히 불리워 질 수 있을 것이다. 都市와 農村을 혼합한다는 생각, 도시를 교대로 農業에 종사케 한다는 생각은 소위 空想的 社會主義者로 불리는 샤를르 푸리에(Charles Fourier)에 의해서 産業革命 期間에 제시되었다. 원만한 社會의 원만한 個人이라는 헬레니즘적인 이상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個性있는 일상의 人間活動의 구체적인 모습은 완전히 都市도 農村도 아닌 兩者가 複合된 곳에서 찾아진다. 生態學은 헬레니즘적인 理想이 인간의 精神的·社會的 福利뿐만 아니라 自然世界 자체의 복리를 위한 前提條件이 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헬레니즘적인 理想이 틀린 생각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時代는 이미 이같은 可視的 接近이 미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벗어나 있다. 1세기 전만 하더라도 大都市에서도 별 어려움 없이 農村에 가는 것이 가능 했으며 원한다면 農村生活을 하기 위해 영원히 도시를 떠날 수도 있었다. 資本主義는 인간의 遺産을 완전히 말살하지는 않았으므로 사람들은 이웃간의 情誼, 새다른 생활 스타일과 個性, 건축의 多樣性, 그리고 심지어 村落社會에 대한 증거 등도 지니고 있다. 새로운 産業體系가 아무리 악랄적이라 할지라도 人間의인 尺度를 완전히 없애으로써 개인을 완전히 소외되고 고립되게 하지는 못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都市화된 가짜 農村에서 살 것을 요구받으며 또한 個性, 人間의인 待遇, 個人的인 利害 등이 결여된 놀랄 만한 官僚制的 組織속에서 이름 대신 숫자를 부여받은 組織構成員이 되어 버렸다. 面積은 고려하지 않고 人口規模만 본다면 지금의 都市들은 지난 世紀의 國家(nation-state)와 비교된다. 人間의 尺度는 非人間的 尺度에 의해 대체되었다. 우리는 자신의 生活을 이해하기 힘들며 더우기 社會環境 또는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環境을 다루기는 더욱 힘들다. 오늘날 우리들 자신의 모습은 1世紀 전에 急進的 自由主義者와 理想主義者에 의해 제시된 幻想과 연루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보다 나은 生活方式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生存自體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本質的 農業은 이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대하여 非現實的인 農耕社會로의 幻想的 도피가 아닌 生態主義的 立場에서 土地를 體系의으로 다시 개척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都市는 분산되어야 한다. 이것은 유토피

아적인 환상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필요하는 점을 傳統的 都市計劃에서도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生態의 共同体(ecocommunités) 들어 건설되어야 하고 生態의 共同体는 그것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生態系에 예술적으로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生態의 共同体는人間次元에 맞게 크기가 정해져야 하고 自体管理가 가능한 최대한의 규모, 그리고 社會의 狀況에 대한 個人的 理解가 가능한 최대한의 규모가 정해져야 한다. 官僚的, 操作的, 中央集權의 統治가 아니라 어떤 地域의 經濟, 社會, 그리고 生態가 共同体 全体에 의해서 관리되는, 그리고 勞動, 利潤, 또는 資本의 蓄積보다는 必要에 의해서 生活手段의 分배가 결정되는 自助的인 体系가 수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本質的 農業에서는 이러한 전통을 技術의 領域에까지 확장시키고 있다. 오늘날 技術은 技術이 고도로 집중화된 勞動粗放的인 形態와 분산된 手工業的인 勞動集約的인 形態로 양분된다. 本質的 農業은 生態工學(ecotechnology)에 의해 이루어진 勞動集約的인 形態나 勞動粗放的인 形態의 中間地帶를 향하여 나아간다. 이는 製品의 小型化, 多用途機械의 生産, 品質保證 生産과 大型工場, 手工業의 均衡調和로 나아가는 趨勢를 말한다. 오늘날 볼 수 있는 大量的이고 고도로 專門化된 化石燃料 依存的 技術과 병행하여 우리는 새로운 技術—風力, 太陽熱, 地熱 등 여러 가지 에너지 資源을 소규모로 지역에서 開發할 수 있는—의 出現을 보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新技術의 발달로 보다 넓은 지역에서 小型 多目的用 機械類를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들의 個人性向이나 趣向에 따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좋은 品質의 半製品을 쉽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의 圓熟한 生態的 共同体는 원숙한 生態工學에 의해 유지될 것이다. 이 共同体 사람들은 고도로 多岐化된 農業과 工業社會에 살면서, 지금까지 시골에 대한 도시의, 노동에 대한 精神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人間의 싸움을 자아냈던 社會의 왜곡을 겪지 않고 가장 精巧한 技術을 스스로 자유스럽게 이용할 것이다.

本質的 農業은 이러한 모든 可能性에 焦點을 맞춘다. 生活에 필요한 基本的인 物質을 토지에서 얻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제일 먼저 토지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은 生態的인 眞理일 뿐만 아니라 社會的 眞理이기도 하다. 우리가 채택하는 農耕方式은 그것이 곧 産業的

및 社会的 生活의 모든 영역에서도 이용될 수 있는 接近方法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資本主義는 市場經濟에 대한 傳統的 農耕社會의 저항을 분쇄하고 社會와 自然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새로운 社會가 이 땅 위에 기록되기까지는 결코 완전히 극복될 수 없을 것이다.

都市와 農村의 合流地点

웬델 베리*

有機農業의 思考는 비록 그것이 技術과 관련을 맺고 있기는 하지만 技術的 思考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有機農業의 姿勢는 눈앞의 目標를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이 가장 손쉽고, 가장 값싸며 가장 빠른 방법인가만을 묻지는 않기 때문이다. 有機農業의 姿勢는 오히려 땅에 대한 人間의 關係를 複合的이고 本質的으로 보는 태도이다. 즉 人間은 땅에서 무엇을 얻고 그 代價로 땅에 대해 어떤 義務와 빚을 지고 있는가 라는 오랜 문제를 제기한다. 農業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條件은 人間이 결정짓는 條件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自然條件이라는 점과 또한 自然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으므로 農業이 自然의 真理나 神秘를 무시하면 失敗하게 된다는 것이 有機農業의 態度이기도 하다.

헨리 아담스(Henry Adams) 이래, 많은 批評家와 歷史家들은 人間과 神의 關係에 있어서 中世의 敎會를 최고의 伸介者가 되게 한 일단의 規律이 붕괴하게 된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더 오래되고 더 근본적인 自然에 대한 人間의 關係를 잘 연계시켜 주던(이 점은 오늘날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지만) 小農과 獨立自營農(yeoman)의 規律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기 시작하고 있다. 人間과 自然과의 關係에 관한 規律은 단순히 營農上의 規律이 아닌 文化의 한 形態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人間에 의해 가장 集約的으로 이용되면서도 땅의 肥沃度를 보존한 오랜 歷史를 가진 複合的인 知慧였다. 그것은 또한 인간들로 하여금 그들의 生命의 源泉에 대한 壽食者가 아니라 保存者가 되게 한 文化였다. 有機農法 運動은 人間과 人間生活의 場을 가

*農場經營主로서 현재 켄터키 大學에서 英語를 강의하고 있음.

장 밀접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연결시켰던 古代의 農法에 그 根柢를 두고 있다. 또한 有機農法 運動은 人間과 自然의 結合의 解体는 人間文化 뿐 아니라 人間生命 자체의 파멸을 위협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고 있다. 엄격하게 지켜져 왔던 대부분의 과거 規範은 이제 效率性이라는 새로운 規範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 效率性의 規範은 原則이나 手段의 바람직함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되는대로 手段을 선택하고 눈앞의 目標을 위해서 手段을 무절제하게 종속시키고 있다. 效率性의 規範은 質은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質의 規範을 대체하고 파괴했다. 效率性의 規範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슨 일이든 잘하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그리고 값싸게 하는 것이다. 또한 效率性의 規範은 農民이 最善의 耕作者, 土地와 技術에 대한 훌륭한 管理者 및 保存者가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 대신 값싸게 보다 많은 畝의 農産物을 生産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土壤이 파괴되었으며 最善의 營農方法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效率性의 原理는 따지고 보면 진실로 效率的인 것은 아니다. 우리는 「效率性」이란 單語를 短期的이고 一時的인 意味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效率性이 갖고 있는 원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效率性」은 후에 어떤 代價를 치르더라도 우선 당장 費用을 적게 들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人間과 自然의 無節制한 낭비를 의미한다. 그리고 最高의 거짓말장에게 가장 많은 利益이 돌아 간다는 것을 뜻한다. 이와 같은 效率性이란 이름 아래 露天鉦業(strip-mining industry)이나 國務省, 中央集權的 官僚制, 그리고 自家用과 같이 엄청난 費用을 수반하는 史上 유례가 없는 破壞와 浪費가 이루어져 왔다.

진정한 의미의 效率性이란 이와 같은 概念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技術과 勞動의 觀點에서 볼 때 진정한 效率性이란 값싸고 신속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效率性은 長期的인 效率性을 뜻한다. 그것은 目的을 維持, 保存하는 手段 속에서, 生産의 源泉을 보존하는 生産方式에서 그리고 항구적이고 良質의 技術 속에서 발견된다. 無節制한 消費主義와 의도적인 流行의 퇴행, 낮은 熱效率, 과잉노동력 등이 만연된 이 時代에서 效率性을 강조하는 세일즈맨과 政治家들은 진실로 청신적인,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할 뿐이다.

우리가 소위 效率性이라고 부르는 착취적인 利用의 소산인 專門化는 이제 파괴의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가 專門化를 수행해 온 만큼 專門化 그 자체는 社会的으로도 生態的으로도 파괴적인 것이다. 專門化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우리의 知識을 광범위하게 증진시켜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체계화되지 못한 知識이라도 知識 그 자체는 좋다는 假定은 논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專門化는 知識을 증진시켜 준 반면 知識을 細分化시켰고 이러한 知識의 細分化로 原理가 細分化되었다. 다시 말해서 專門化는 專門家로 하여금 매우 좁게 제한된 영역 속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과정의 발견에 몰두케 함으로써 專門家들로 하여금 그들의 發見이 人間社会和 自然에 끼친 영향을 볼 수 없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게 하여왔기 때문이다. 專門化는 知識의 축적과 그것의 즉각적인 利用이 가능한 原則만을 높이 평가하고 知識의 궁극적인 영향에 관련되는 原則들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띠어 왔다.

이러한 경향은 農業部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農業專門家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토지의 肥沃度와 생태적인 안정을 유지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農業体制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사소한 農業問題 解決과 年間 生産量에만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마치 農業에 적합한 유일의 原則은 經濟學의 原則인 것처럼 생각하고 소위 「效率性」에만 지나치게 집착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農業의 급속한 企業化를 주장하는데 열을 올렸다. 이와 같은 農業의 企業化는 農業地域의 生態學的인 파괴와 農業人口의 감소, 農民으로부터의 土地剝奪, 그리고 잠재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다.

健全한 農業은 가능한 한 多角化된 農業으로 다양한 種類와 品種의 作物과 家畜을 재배, 사육하며, 모든 有機質 廢棄物이나 排泄物을 土壤에 되돌려 줄 수 있는 農業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實驗室의 專門家들은 農業의 專門化를 촉진시키고, 專門化된 농업을 장려하고 腐蝕土를 化學肥料로 대체할 것을 종용해 왔다. 그리고 都市住民들의 土地에 대한 要求가 점차 커짐에 따라 農業專門家들은 점점 土地가 아닌 실험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장기간에 걸쳐 生産性이 높은 農業을 維持하기 위해서는 土地를 이해하고 애정을 가진 안정되고 부유한 農家들이 절대 필요하

다는 歴史的인 사실을 무시하고 專門家들은 農機械와 새로운 營農技術을 개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소농의 脫農化와 都市로의 離村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農業專門家들의 近視眼의인 노력의 결과로 우리는 이제와서 어쩔 도리가 없는 급속한 생태적, 사회적인 파괴와 함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늘날의 土地는 有機質이 부족하므로 건전한 農業經營을 위해서는 有機質廢棄物이 農土로 환원되어야 하나 대부분은 하수도를 통해 하천과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거나 소각처리로 대기를 오염시키기도 하며 또한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이와 비슷하게 건전한 社會에서 農村의 근간을 이루는 소농들은 이들의 數代에 걸친 土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끊임없는 愛情으로 토지를 잘 保存해 왔으나 效率性的 經濟法則 덕택에 離農民이 되었으며 이미 과밀한 都市生活에 종속하게 되었다. 위의 두 가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效率性이란 이름 아래 진행되어 온 지식의 남용으로 이제 農業은 우리 社會의 資産이 아니라 問題거리가 되었다.

현대의 農業은 오로지 自然週期 가운데 生産局面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生産手段은 어느 때보다도 정교해진 반면 土壤의 健康과 肥沃度を 함양하기 위한 手段은 化學物質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되었다. 企業的 觀點에서 볼 때 현대농업은 變動하는 것이 아닌 한 收穫期에서 다음 收穫期까지 線形的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이것은 다른 아닌 황폐만을 초래한다. 現代農業은 土壤을 황폐화시키며 土壤에 환원되어야 할 動物의 排泄物과 다른 有機質 副産物을 낭비한다. 엄청난 양의 農業廢棄物은 위와 같은 觀點에서 인식되어 지지 않고 도시의 産物이며 都市의 問題라고 여겨져 왔다. 즉, 소각되고, 매몰되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많은 양의 쓰레기와 下水汚物로 인식되어 왔다. 다른 모든 폐기물과 같이 이것도 資源의 浪費이며 이는 로마를 파멸시킨 것과 같은 형태의 生態學的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化學者 유스투스 리비히(Justus Liebig)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大都市의 下水溝들은 몇 世紀에 걸친 로마農民의 변명을 앗아가 버렸다. 로마帝國은 더 이상 그 人口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下水溝는 시실리 사르디니아의 富를 파괴하였으며 아프리카大陸 해안에 있는 비옥한 土地를 황폐화시켰다.”

“都市廢棄物”의 破壞性的 程度를 깨닫는 것은 農業이 몇몇 專門家에게

맡겨질 수 있는 또 다른 形態의 技術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도시의 하수와 쓰레기 문제는 건전한 農業은 문화적인 有機體이며, 건전한 農業은 人類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農業을 지속시키는 것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저야할 의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도시의 하수와 쓰레기 문제는 都市가 生態系 속에서 존재하는 것과 같이 農業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또한 農民과 마찬가지로 都市民들도 農業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즉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낭비하지 않으며 有機質 廢棄物을 土壤에 되돌려 주는 책임이 都市住民에게도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事物”을 조작하는 데 사용한 原理가 부적절한 原理였다는 사실은 실제로 잘 모르고 있다. 우리들의 都市는 共同體라기 보다는 工場이나 自動販賣機로 설립되고 있기 때문에 살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있다. 이 都市는 富와 享樂, 그리고 안일함의 상징이다. 친절한 社會를 추구하고 共同體 規律이 없는 都市는 가난과 짜증, 그리고 病魔의 專有物이 된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富, 享樂, 안일함의 추구는 共同社會 觀點에서 보면 不適切한 目的이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는 農村共同體 —즉 土地와 사람—는 農民의 유일한 기능이 生産이고 農民의 주요한 原則은 經濟學이라고 보는 專門家들의 前提에 의해 타락되어 가고 있다. 專門家들의 前提와는 반대로 農民의 機能과 原則은 準備와 관련된다. 다시 말하면 農民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을 내다 보아야 한다. 農民은 需要를 예측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經濟的이고 機械的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資源을 보존하는 營農方法을 사용하기 위해서 앞을 내다 보아야 한다. 農民의 일에서 건전한 經濟學과 건전한 生態學은 같은 것이다. 農民은 工場勞動者도 아니다. 건전한 都市의 居住者는 事務員이나 工場勞動者가 아니고 都市共同體의 일부분이고 保護者인 것과 마찬가지로 農民은 農村社會의 守護者이며 保證人이다. 우리가 모든 市民을 工場勞動者로 생각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이미 완전히 機械的이고 經濟的인 秩序 속에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일부분으로 간주함으로써 우리는 共同體를 해체하여 왔다.

農村社會—물론 都市共同體와 혈연관계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도 될

수 있다 —의 健全性を 측정하는 指標는 作物 栽培面積과 林野面積의 상대적인 크기라 할 수 있다. 林野는 短期有実樹林 뿐만 아니라 長期有実樹林과 用材林도 포함된다. 1년을 單位로 하는 經濟的이고 生物學的 週期 안에서 단지 들 農事만을 하는 것은 불안정한 사람들의 특징이며 이들은 經濟的인 위험이나 文化的 價値의 下落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한다. 이것이 美國農業의 支配的인 類型이다. 일에 대한 經濟的인 보상을 충분히 받고 文化的인 價値觀을 확실히 보장받는 안정된 農民들은 보다 다양한 當農方法과 態度를 지니는 경향이 있다. 그들 역시 일반적으로 들 農事를 짓는다 할지라도 흔히 나무도 가꾼다. 유럽의 경사진 구릉에는 農民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보호하고 가꾸는 밤나무들로 덮여 있었다고 러셀 스미드(J. Russell Smith)는 그의 유명한 著書「山林作物(Tree Crops)」에서 쓰고 있다. 대부분의 나무는 오래된 巨木들이며 한 나무가 죽으려 할 때 그것을 대신하여 그 옆에다 새로운 苗木을 심는다. 여기에는 土地와의 연계에서 개인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안정감을 느끼는 농민들 사이에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농업적인 원칙이 있다. 이러한 原則은 한창 때의 젊은이들에게만이 아니라 傳統의 固守者인 나이든 사람들에게도 지켜진다. 이러한 農業的 原則은 나무의 결실을 볼 수도 없는 노인들이 苗木을 심는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심는 나무의 價値는 어떤 市場에 대한 予測을 초월하는 것이다. 노인은 나무를 심는 것이 주위의 사람들과 후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 확실하므로 나무를 심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生態學的으로나 農業的으로 건전하기 때문에 계속되며 經濟的인 安定性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들 作物을 심는 것은 “短期投資”로 여겨지는데 반해 밤나무를 심는 것은 信念에 대한 약속이다.

效率性和 專門化의 歪曲像은 實驗室로 비유될 수 있다. 그것들의 作業 假說은 일반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目標를 향하여 대체로 이해 가능한 과정을 통해 自然과 社會를 實驗실에서 實驗처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類推는 어떤 農民이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너무 간단하다. 왜냐하면 自然과 人間은 確實性이 모호하고 予測 불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神秘하기 때문이다. 앨버트 허워드(Albert Howard) 卿은 이 문제에 관해서 “새로운 사실의 발견에만 적합한 科學의 分析的

方法에 의해 主題를 細分하여 農業에 대한 연구를 하는 대신 우리는 生命體를 관련없는 事物의 單純한 結合體로 보지 말고 複合的으로 접근하여 살펴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農學者나 科學者, 그리고 農民들은 적절한 農業經營의 모형을 숲에서 찾아볼 수 있다. 왜냐 하면 숲은 하워드(Howard)가 지적했듯이 “스스로 施肥함으로써” 스스로 地력을 증진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農業은 自然條件에 逆行하거나 自然을 “지배” 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연 속에서, 자연의 循環過程에 순응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하워드는 정교한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즉 “自然은 家畜을 기르려고 하지 않는다. 自然은 항상 混合耕作을 한다. 土壤을 보존하고 그의 침식을 막는데 많은 努力을 기울인다. 植物과 動物의 廢棄物은 혼합되어 腐蝕土가 된다. 浪費는 전혀 없다. 成長過程과 腐蝕過程은 서로 均衡을 이룬다. 肥沃度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게끔 많은 준비가 되어 있다.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많은 주의를 한다. 植物과 動物은 스스로 질병에서 보호되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農業은 實驗室科學(laboratory science)이 아니라 實踐科學(science of practice)이다. 農業을 하나의 藝術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農業은 실제 知識 뿐만 아니라 文化的 傳統에서 발달되기 때문이다. 農業은 敎訓 뿐만 아니라 例示와 徒弟制度로 教育된다. 또한 農業經營을 위해서는 自然現象과 그 運行過程에 대한 충분한 知識 뿐만 아니라 不確實性和 뜻밖의 재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문화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가장 발달되고 가장 풍부한 意味의 어떤 樣式을 요구한다.

現代의 樂觀論에서 자주 거론되는 敎理 가운데 하나는 “人間을 달에 보낼 수 있는 나라는 貧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이 命題는 세 가지 면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 오류들을 우리 자신의 대표적인 意識적 견해로 받아 들일 수 있을 것 같다.

1. 위의 命題에서는 달(月)로의 飛行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歷史的 事件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사실상 매우 不確實한 意味만을 갖는 단편적인 사건이다. 美國人은 新大陸을 開拓했던 것처럼 달에 착륙했다. 그들의 관

심은 달에 간다는 그 자체에 있었지 그곳에 머문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지금까지의 人間의 歷史가 황폐와 파괴의 역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美國에 계속 살아남게 될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는데 하물며 달에서의 生活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成長과 消滅의 過程이 均衡을 이룰 때 까지 이 大陸 위의 白人의 居住는 불완전할 것이다. 産業化 이전의 時代에 日本人들은 소규모 營農을 경영하여 왔으며 그들은 1907년에 이미 1에이커당 3명을 초과할 정도로 인구가 과밀하였지만 土地의 肥沃度를 고도로 유지하면서 수천년간 계속되어 온 傳統的인 營農에 종사하였다. 日本의 農民들은 한해 農事를 완전한 역사적인 일로 여겨 왔다. 이 歷史적인 일이란 農業過程과 自然過程이 農民들의 마음과 勞動 속에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世界에 대한 意味와 神秘로 가득 찬 것이었다. 그에게는 過去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傳統과 人間에 대해 전혀 가치를 두지 않는 社會, 그 社會가 물려받은 불완전한 農業傳統마저도 파괴하는 社會, 機械의 도입으로 農村住民들을 쫓아내는 社會, 土地를 維持, 保存하는 技術보다 生産을 늘이는 技術에 치중하는 社會, 스스로 食糧을 비롯한 어떤 生活必需品도 생산해 내지 못하는 都市에 밀집된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보다 큰 利益을 주기 위해 몇 명의 농민들만이 영농을 하는 農村을 理想的이라고 여기는 社會에 대해서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2. 人間의 달 着陸에 근거하여 農業을 樂觀적으로 보는 見解는 農業과 技術 사이에 等式이 존재한다는, 또는 農業도 技術의 일종이라는 假定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는 農業專門家들에게 널리 일반화된 그릇된 假定이다. 이들 農業專門家들은 都市 消費者들이 그들의 食生活이 農業과는 관계가 없고 經濟學에만 관련되어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처럼 農業을 生態學이나 人間文化에 적합한 것이 아니라 經濟學에만 적합하게 응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 왔다. 食生活에 적합한 原則은 經濟學이 아니라 農學이다. 農業은 生産活動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土壤에 有機質 廢棄物을 환원시킴으로써 유지되므로 農業에 적합한 原則은 經濟的인 原則이 아니라 生態學的인 原則이라 할 수 있다.

“知覺을 맑게 하고 활발하게 하는 藝術 속에서 生態學에 적합한 원칙이 발견되는데, 이는 生態學的 원칙이 아무리 널리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世界와 自己自身과의 관계에 대한 各自의 知覺에 기초해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實驗室에서 이루어진 結果를 類推하는 農도 아래서는 복잡한 人間의 욕구 보다는 단순한 수단이 관심의 초점이 되고 기준이 되었다. 예를 들면 農業專門家は 取穫機의 사용에 가장 적절한 條件을 제시하며 단지 機械 자체만을 생각할 뿐 수확기 사용의 문화적인, 생태학적인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最適條件에만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에 大規模 農場의 營農技術은 크게 발달하였으나 여전히 傳統的인 營農方法과 經濟原理를 적용해야 하는 家族營農의 技術은 等閑視 되었다. 이러한 理由와 보다 긴박한 다른 이유 때문에 小農과 小農의 營農技術은 급격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 결과 토지의 生産能力은 있으나 적절한 生産方法과 耕作 畝間자가 없는 限界農耕地가 증가하고 있는데, 훗날에는 이러한 限界農耕地도 만드시기 다시 이용해야 할 때가 올 것으로 본다면 限界農耕地의 증가는 좋지 않은 정후로 보인다.

營農과 農民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고, 인간의 욕구와 관심으로부터 土地利用을 개념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假定이다. 이러한 假定은 農民을 工場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勞動者를 한 工場에서 다른 工場으로 옮기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文化的 行爲라는 것이다. 이러한 假定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복잡하고 궁극적인 性格을 지니고 있다. 美國農業의 傳統은 처음부터 거의 모든 면에서 부적절하며 또한 황폐한 농토도 많다. 그러나 美國農民들은 오랜 기간 農業에 종사했던 사람들이다. 美國에서 農事를 지었던 대부분의 定着民들은 유럽에서 農事를 지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美國의 農民들은 문자 그대로 數千年에 걸쳐 형성된 일련의 態度와 關心, 그리고 知識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精神扶態는 美國의 여건에 꼭 들어맞는 土着化된 참된 農業을 일으킬 수 있었거나 일으킬 수 있는 값진 資源이었다. 비록 이러한 정신상태의 淵源이 깊다 할지라도 都市로 이주한 農民들은 한 世代 후에는 이러한 정신상태를 완전히 잊고 만다. 왜냐하면 農民精神은 土地와 긴밀한 關係를 계속 유지해야만 존속되기 때문이다.

農業에 대한 보다 진실된 認識은 營農을 經濟的인 또는 社會的인 기능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土地의 機能으로 보려는 것이며, 또한 農民들은 生態學的 體系 안에 必要不可缺한 要素로 보려는 것이다. 존 콜리어(John Collier)에 의하면 “잉카族의 基本的인 社會 經濟單位는 部族(tribe) 또는 아일루(ayllu)였다. 하지만 아일루는 단순히 그 住民도 아니고, 土地도 아니었으며, 神祕한 매듭으로 묶여진 그 住民과 土地였다”고 말한다. 土地와 住民의 結合은 結婚이나 神의 恩寵처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최근의 新聞報道에 의하면 로데지아의 탕웨나 部族의 酋長 레카이는 祖上 대대로 내려온 故鄉을 떠나라는 白人들의 強要를 거절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이 땅과 결혼했다. 나는 神에 의해서 여기에 태어났다. …… , 따라서 신만이 나를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수 있다.” 內務相은 이 自然스럽고 고매한 感情의 表現을 “共產主義者들의 영향을 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3. 달 世界로의 여행이 우리들에게 충분한 食糧을 보장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知的인 確信이 알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왜냐 하면 이러한 생각은 訓練(training)과 教育(education)을 구별할 수 있는 能力이 점점 적어져 가고 있다는 데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우주 비행사는 훈련에 의해 양성되며 農民은 教育을 통해 양성되므로 한 人間이 훌륭한 農民으로 양성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시일 안에 우주 비행사는 양성될 수 있다. 訓練이란 人間이 주어진 條件에 적응하는 과정, 즉 주어진 사실과 기능의 유형에 따라 차례로, 效率的으로 배우는 과정이다. 반면에 教育은 개인의 經驗을 개인의 현재의 위치와 歷史 속에 연계를 맺게 하는 애매모호한 과정이다. 大學은 한 人間을 4년 동안 훈련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이 期間 동안 大學은 한 人間의 教育을 시작하기조차 힘들다. 人間의 教育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가 전승받을 規範, 傳統, 精神的인 態度의 形成에 관하여 教育을 받으며 또한 人間의 教育은 값비싼 代價를 치르며 지속적으로 經驗을 축적하면서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 宇宙 飛行士를 만들어 내는 과정은 훌륭한 軍人, 工場勞動者 및 經濟官僚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과정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훌륭한 農民, 훌륭한 藝術家, 훌륭한 市民, 훌륭한 어버이를 결코 만들어낼 수는 없을 것

이다.

筆者가 아는 範圍 안에서 볼 때 美國의 歷史는 이러한 문제들을 일관하여 고려한 社會的인 통찰력을 지닌 사람은 토마스 제퍼슨 뿐이다. 제퍼슨은 國父, 자유의 주창자, 지금은 역사 속에 파묻힌 法律이나 行動綱領의 提唱者로만 그 명성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思想에 따르면 民主主義는 홀로 이룩될 수 있는 理想的인 것이 아니었다. 그는 民主主義는 엄격한 規律에 의해 守護되어야만 한다고 보았으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엔 公共機關들은 平凡과 타락의 專橫物이 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제퍼슨의 정치적인 명성에만 관심을 가지면 그의 심오한 知慧를 파악하기 어렵다. 제퍼슨은 民主主義에는 두 가지 원칙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 하나는 모든 經濟的인 계층에서 “美德과 才能”을 가진 사람들을 추출하여 우수한 指導者 集團을 형성해야 할 教育이고, 다른 하나는 土地로서 많은 사람들이 土地를 所有함으로써 안정된 社會가 이룩되며, 國家에 대한 굳은 유대를 형성하고 福祉에 관해 持續的인 관심을 갖게 된다. 다음과 같은 제퍼슨의 말은 잉카族의 아일루(ayllu)와 탕웨나스(Tangwenas)族의 酋長 라카이(Rakayi)의 말에 대한 콜리어(Collier)의 묘사를 생각나게 한다. 즉 “農民은 그들 나라에 결부 되어 있다. 또한 가장 굳센 유대에 의해 그들 나라의 自由와 利益에 얽매어 있다” 또한 그는 “…… 法律家들은 財産을 세분하는 方法을 아무리 많이 고안하여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말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소규모의 土地라도 소유하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규모 土地所有者들은 國家를 지탱하는 가장 귀중한 要素이다.”라고 말했다. 제퍼슨이 생각하고 있었던 바와 같은 社會의 教育과 신뢰와 통치에 필요한 우수한 집단을 양성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인간적인 教育의 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아주 쉽게 최고의 專門家를 양성하는 전문적인 훈련을 해주어야만 했다. 우리들이 현재 누리고 있고, 명백히 누리기를 원하는 “한줌의 土地” 所有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선동적인 政治家의 지배하에 복속시킬 유치하고 추상적인 愛國心을 지니게 된다는 것은 우리들을 獨善에 빠지게 하는 捷徑이다.

1814년 9월 14일, 제퍼슨은 토마스 쿠퍼(Thomas Couper) 博士에게 “社會의 條件”에 대해 그가 당시 본대로 편지를 썼다. 우리의 社會에는 社會的으로 유리된 아무 財産도 없고 부양할 家族도 없는 極貧者와 老人

및 障礙者가 아주 적다. 국민의 대부분은 勞動者들이다. 富者는 거의 없고 적당하게 富를 누리고 있다. 대부분의 勞動者들은 財產을 가지고 있고 그들 자신의 土地를 耕作한다…….

또한 그들은 勞動需要에 의해 충분히 먹고, 적당한 의복을 입으며 적절하게 노동에 종사한다. ……富者들은……유럽인들이 奢侈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와 같은 社會는 生産者는 많고 단순히 消費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職工은 정력적으로 일하고 消費者는 절제하는, 孔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社會의 모형과 아주 흡사한 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理想의 喪失과 理想을 실현할 可能性의 모기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한 都市貧困과 또한 타락한 需要로 특징지을 수 있는 社會를 만들어 냈다.

즉, 浪費의 社會라 부를 수 있는 無節制한 需要의 社會를 만들어 내고 말았다.

海外農業資料17

現代農業의 危機

1981년 11월 7일 발행

發行人 金 甫 炫

發行處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31 서울특별시농촌진흥연구소기동4-102

登錄 1979年 5月 25日 第3-135호

전화 965-7312~5 값 500원

印刷 東洋文化印刷株式會社